

제일영도교회 장년주일학교

1월9일(주일) 오후1:30~2:30

Leadership Conference

제1강

성경적 직분론

강화구 목사

성 경 적 직 분 론

강화구 목사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하나님은 직분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신다. 현대 교회의 직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이 가르치는 직분과 그 역사적 발전 과정을 간단하게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1. 구약 성경의 직분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그 직분을 수행하는 것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소위 전통적인 의미에서 직분은 출애굽 세대로부터 나타난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모았고(출4:29),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도 이스라엘의 칠십 장로가 함께 했다(24:1-18). 광야 생활 중에 모세는 자신의 짐을 나눠 질 직분자들을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과 십부장으로 세웠다(출18:13-27).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의 핵심에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 있었으며(레8-10장), 선지자라는 직분의 이름 역사 모세 오경에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소개하셨고(창20:7), 모세를 선지자라 칭할 뿐아니라, 이후에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신 18:18). 그러므로 성경에서 직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기 위해 사용하신 가장 중요한 방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1.1. 직분의 시작

1) 제사장 아담과 하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에덴 동산은 지성소의 원형으로 나타나고 후일 성막, 성전, 그리고 새하늘과 새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임재의 원형적 공간으로 기능한다. 또한 아담과 하와가 그 땅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하셨는데, 이 표현이 모세

오경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는 오직 제사장이 성막에서 직무를 행하는 것과 관련된다. 제사장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경작하고), 또한 성막 전체를 부정한 것들로부터 정결하게 지키는 직분을 감당했다. 지성소와도 같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에덴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즉,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에덴동산에 부정한 것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거룩하게 지키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아담과 하와는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해 왕으로서 자신의 통치권을 행사했다. 하나님은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그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다(창1:28).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은 세상을 통치하는 작은 왕으로 다스리며,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서 대표하는 존재로 살게 된다. 세상을 다스리는 작은 왕으로서 아담은 가장 먼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통해 자신의 통치권을 이행했고, 땅을 향해서는 땅을 경작했고, 땅은 아담에게 소출을 내어 줌으로 그의 왕권을 인정한다.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노아와 그 가족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인류를 구원하시고 보존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함께 다시 언약을 세우셨으며 첫 인류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하신다. 노아는 다시금 아담의 직분을 행하는 인류의 대표가 된 것이다.

2) 직분자로 부름받은 족장들

선지자라는 말이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곳은 모세가 아닌 아브라함의 때였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소개하실 때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창20:7)라고 말씀하신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방 가운데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도록 세우셨다.

족장 시대는 구약 시대의 직분이 구체적으로 분화되기 이전이었다. 그러므로 가정의 가장이요 족장들은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했다. 족장들은 가문의 머리로서 왕과 같은 존재였으며, 또한 선지자의 직무를 행하기도 했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므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기도 했다.

1.2. 구약의 직분들

구약에 여러 직분이 등장하지만,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직분은 구약에서 특별히 기름을 부어 세운 직분들에 국한된다. 신정국가로서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은 세 가지 직분을 기초로 나라의 기틀을 세우셨고, 나라가 그 기능을 행하며 성장하게 하셨다.

1) 왕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왕권은 일반적으로 주변 열강들이 이해하던 왕정 제도와 달랐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수행할 수 있는 전통적 의미의 전제 군주와는 거리가 멀다. 이스라엘의 왕은 열방의 왕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실행함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뤄가야 한다. 하나님은 다윗 왕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왕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완성하셨다.

2)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왕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다. 공적인 직분으로 선지자 제도가 시작된 것은 사무엘 시대였다. 그는 선지자 학교를 세우기도 했다. 선지자 계보의 대표는 엘리야라고 할 수 있다. 선지자는 왕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고, 왕과 국가에 대해 비판적인 예언을 전달하는 선지자가 있다.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일은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은 모두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예견한다. 이는 전통적인 예언의 의미를 넘어선다. 선지자가 말하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모두 이미 과거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언약적 축복과 저주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미래가 아니라, 말씀이 예견하고 있는 미래를 공적으로 선포하는 의미가 있다. 선지자로서 모세가 언약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선포하셨다면, 구약이 기다리던 바로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산 위에 오르셔서 새로운 나라의 율법을 선포하셨다(산상수훈).

3) 제사장

하나님은 제사장을 선택하심으로 성막에서 예배하고 성막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에덴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처럼). 기본직무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드리며 중재하는 역할이다. 타락한 백성들은 언제나 죄로 인해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제사장이 바로 그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제사장의 근본직무는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48개 성읍으로 흩어져서 각 지파 사이에서 거주할 때 그들은 그 백성들 가운데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해야 했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의 역할을 했다 할지라도 제사장조차도 사실은 자기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되 일시적으로 죄를 속하고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되는 참된 대제사장이 오시길 사모하고 기다리게 된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는 무죄하신 분으로서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성소까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2. 직분자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른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기름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를 뜻한다. 구약에서 기름부음 받은 사람들 즉 왕, 대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를 뜻하고, 예수께서 바로 이 삼중 직분을 수행하신다는 뜻이다.

2.1. 왕

예수께서는 왕으로서 온 세상 만물과 당신의 언약 백성인 성도들을 복종케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신다. 또한 왕으로 우리의 모든 대적자를 이기신다. 우리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신다.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직무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를 통해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왕으로가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 (막10:45).

2.2. 제사장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신다.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하게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질 제물로 드리셨다. 예수님은 자신을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셨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재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신다.

예수께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행하신 것처럼 교회의 직분은 마땅히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화목을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화평을 추구해야 한다. 나아가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함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부르심이다(고후5:18-21).

2.3.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구원의 계획을 그 백성들에게 알게 한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이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전하시기 때문이다. 그는 말씀 자체이다(요1:1-2). 구약의 선지자가 행했던 직분을 예수께서 완성하셨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뜻을 전달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자신의 말씀을 전하셨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적 의미로서의 선지자는 이 시대에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셈이다.

3. 직분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삼중직을 통합하시고 완성하셨다. 예수님은 이 직분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31문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역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동참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삼중직을 동일하게 감당할 은혜와 특권을 가지게 된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32문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릅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에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삼중직이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었다. 왕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코 제사장의 일을 대신할 수 없었다.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버림받았다. 위대한 왕 웃시야 역시 마찬가지다. 나라가 부강해지자 스스로 교만해진 웃시야는 제사장의 권한을 무시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리려다가 한센병에 걸려 남은 생을 격리된 채 지내야 했다.

그리스도 즉 기름부음 받은 자이신 예수님은 구약에서 기름부음 받은 자들의 직분을 온전히 성취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시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즉 삼중직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직분을 세상 가운데 행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은 왕으로서 이 세상을 말씀의 뜻을 따라 다스리며,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세상의 왕인 마귀를 대적한다. 마지막에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며 다스리게 될 것이다. 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 자신을 합당한 산 제물로 드리며, 주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 나아가 이웃과 세상을 가슴에 품고 보좌 앞에서 중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세상을 향해 경고해야 한다.

4. 신약 성경이 말하는 직분

신약 성경에서는 두 가지 직분만을 말한다: 장로, 집사. 집사 직분은 그 기원에 있어서 장로(목양과 치리)의 직무와는 별개로 완전히 독립된 직무의 필요에 따라 세워졌다. 그 직무는 별개의 것이지만, 그들의 섬김은 장로의 섬김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4.1. 사도

신약 직분의 시작이며, 예수께서 친히 열두 명을 임명하셨는데, 이들을 부르시기 전 예수께서는 밤새워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셨다. 가롯 유다의 이탈이 생겼을 때, 사도들은 나머지 한 사람을 기도하며 제비 뽑아

채웠는데,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는 사도직이 계승되거나 채워지지 않게 되었다. 사도로 뽑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세례로부터 승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닌 사람이어야 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자여야 했다. 이런 이유로 초대 교회의 사도권은 본질적으로 계승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스라엘에 열두 지파가 있듯이, 신약 교회에는 열두 사도가 있다. 이는 구약 시대의 조직적 완전성을 상징적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2. 집사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초대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급성장하자 교회로 찾아드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필요가 더 증대되었다. 이로 인한 갈등이 생겼을 때 사도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구제를 감당할 수 있는 집사를 세운다. 비록 사도행전 6장에서는 집사라는 말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 기능은 명백하게 집사를 뜻하는 것 같다. 하지만,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나는 집사의 직무는 오늘날의 집사 직무와는 어느 정도 구별되는 측면이 있다. 집사로 부름 받았던 사람들 중 스테반, 빌립 등은 실질적으로 전도자요 설교자의 역할도 감당했기 때문이다.

4.3. 장로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들이 세워질 때 사도들은 지역에서 장로들을 세운다. 이스라엘에는 구약시대로부터 장로가 항상 존재해 왔다. 그들은 지역의 유지/ 원로의 역할을 감당했었는데, 교회 안에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게 된 것이다. 바울은 이방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 그곳에 장로를 세우고 다른 선교지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사역했다. 장로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왕권과 말씀으로 통치하심을 대행자로서 실행하는 사람들이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흐름과 같이 오늘날 전도와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도 이에 부합되어야 한다.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그 후에는 궁극적으로 선교사가 아닌 현지의 장로를 세워 자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4.4.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등

선지자는 구약에 근거해서 당시 존재했던 직분이었다. 또한 당시에는 순회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에베소서에서 나타난 목사와 교사는 아마도 현재의 신학교 교수와 같이 말씀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목사와 교사는 독립된 두 개의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의 직무와 교사의 직무를 하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목사는 가르치는 은사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다.

5. 교회 직분자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2022년 제일영도교회의 직분자로 부르셨다. 어떤 자세로 우리의 직분을 수행해야 할까?

5.1. 좋은 신자되기

1) **참된 예배자:** 주일을 지킴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어야 한다. 말씀 앞에 진실되게 서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결실해야 한다.

2) **말씀의 사람:** 올해 다시 작성하고 성경 읽기를 시작하자. 일 년 일 독 다짐하고 묵상하자. 무엇보다 교회에서 제공되는 성경을 공부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 말씀의 토대를 굳건히 세우자. 제일아카데미를 통한 장년 교육 프로그램에 우선순위를 두자. 말씀의 토대를 세우는 일은 1-2년 만에 이뤄지는 일이 아니다. 평생 삶의 방향을 잡아가는 일이기에 지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배움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3) **뜨거운 기도의 사람:** 말씀과 기도는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매일 5분씩이라도 개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직분자라면 마땅히 자신이 맡은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5.2. 좋은 동역자되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룬다. 어떤 이는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자신의 직분을 감당한다. 직분에는 상하도, 중요도의 차이도 없다. 부르심의 차이요, 직무의 차이일 뿐,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는 일이며, 그 어느 것도 불필요한 일이 없다.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되,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목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직분을 통해 서로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좋은 동역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교회의 직분자로 부르신 주님의 뜻이다.

쉽게 상처받았다고 섭섭하다고 생각지 말라. 단순하게 자기의 뜻이 관철되기만을 요구하지 말라. 직분을 행함에 가장 위험한 일이다.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직분을 통해 공동체를 세워야 함을 결코 잊지 말자. 일이 안 되어도 좋으니 양보하고, 마음을 모으는 일을 포기해선 안 된다. 모든 일을 마치 주님께 하듯 봉사의 일을 해야 한다. 모든 사람을 대하되 마치 주님을 섬기듯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받아들이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마친 후에는 '나는 무익한 종'이라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을 고백하는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

5.3. 좋은 열매 맺기

직분을 행함은 결국 우리 모두 함께 그리스도 몸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함께 자라기 위함이다. 즉, 직분을 수행함으로 누리게 되는 최고의 축복은 우리의 믿음과 삶이 성숙해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다. 직분을 행함은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직분을 통해 더 사랑하고, 더 인내하고, 더 자비롭고, 더 충성되고, 더 기뻐하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

6. 결론

하나님께서 2022년 한 해를 기점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바로 회복시키시길 바란다. 한층 더 크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길 소원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이 선택하신 사람을 통해 일하시며, 우리는 그 일을 직분을 행함으로 감당하게 된다. 성경적 직분의 귀중함을 깨닫고 직분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Memo